

CULTURE NOTE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52722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15 (칠암동)
T. 1544-6711

Gyeongnam Culture & Art Center
52722 215, Gangnamro,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청렴한 당신이 문화예술을 아름답게 합니다.

관하오
리나제이
줄거로 내일

2022 7-9

공연·전시 일정

● 대공연장 ●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7
July

SUN	MON	TUE
3	4	5
10 ● 충무공 김시민 장군 '진주대첩 교향곡'	11	12
17 ● 경남도립국단 여름 특별공연 연극 바캉스 3story 9actor	18	19
24 ●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25	26
31		

WED	THU	FRI	SAT
		1 ● 제23회 아름다운 여행전 정기전(∼5일) ● 제14회 진주아와사생회 정기전(∼5일)	2
6 ● 제8회 '혁신에 예술을 더하다' 진주재즈콘서트	7 ● 제20회 아름다운 만남전 (∼11일)	8 이은결 'MAGIC&ILLUSION' ● 2022 진주 ART FORUM 아름다운 동향전(∼12일)	9 이은결 'MAGIC&ILLUSION'
13	14 ● 대한민국 경남 환경미술대전 수상작 및 초대작가전 (∼19일)	15 ● 경남도립국단 여름 특별공연 연극 바캉스 3story 9actor ● 제18회 진주사생회 정기전(∼19일)	16 ● 경남도립국단 여름 특별공연 연극 바캉스 3story 9actor
20	21 ● 제10회 백진화 개인전 (∼25일)	22 ●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23 ●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27	28 ● 필도보부상 '이야기 보따리' ● 전국영상인연합진주지부 사진 전시회(∼31일)	29 ● 진주시립교향악단 제2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30 ● 이야기가 있는 청소년 클래식 음악회 'Young Artist Concert' ● 제12회 진주 난 연합회 전시 출판 전시대회(∼31일)

8
August

SUN	MON	TUE
	1	2
7	8	9
14	15 광복절	16
21	22	23
28	29	30

WED	THU	FRI	SAT
3	4 ● 제37회 대한민국총효 미술대전(∼8일) ● 제37회 대한민국청소년 가운대전(∼8일)	5	6
10 ● 오도행전(∼15일) ● 운산필우전(∼15일)	11 ● 제52회 축석회전(∼15일)	12	13
17	18 ● 제42회 직(直) 전시회 (∼22일)	19	20 ● 2022 개천미술대상 1차심사 및 본심사
24	25 ● 2022 여름공연예술축제 ● 참진주수채화회 15회 정기전(∼29일)	26 ● 2022 여름공연예술축제	27 ● 2022 여름공연예술축제 ● 2022 개천미술대상 2차접수 및 심사(∼28일)
31 ● 그림자극 '모차르트 마술피리'			

9
September

SUN	MON	TUE
4	5	6
11	12	13
18	19	20
25	26	27

WED	THU	FRI	SAT
	1 ● '따뜻한 심포' 2022 진주시 고등학교 동문합창단 연합 합창 페스티벌 ● 제23회 진주서양화작가회 정기전(∼6일) ● 제2회 대구한유미술협회와의 교류전(∼6일)	2 ●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72회 정기연주회	3 ● 진주유스오케스트라 제22회 정기연주회
7 ● 진주시립교향악단 제95회 정기연주회	8	9	10 추석
14 ● 클래식앙상블K 창작을 찾아 '안다미로'	15 ● 크노마이오페라 '나부코' ● 소리이야기 주수현 개인전(∼20일) ● 진주원로작가 작품전시회(∼19일)	16 ● 2022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17 ● 제8회 진주시 초등학교 합창경연대회
21	22	23 ● 유니버설발레단 '더 발레리나' ● 전국사진촬영대회 작품 전시(∼27일)	24 ● 유니버설발레단 '더 발레리나'
28 ● 프렌치 집사밴드 'DUSKY80'	29 ● 제71회 개천예술제 전국음악경연대회	30 ● 제71회 개천예술제 전국음악경연대회	

※ 문화노트에 게재된 모든 공연 및 전시의 일정 · 출연진 · 프로그램은 코로나19와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름 특별공연 3story 9actor

바승규 원감독
조정우 박시우 박선혜
이상희 이진희 이세진

경남도립극단 여름 특별공연

연극 바캉스 3story 9actor

7. 15. 금 16:00 타자기 치는 남자, 19:30 대학살의 신

7. 16. 토 14:00 대학살의 신, 16:30 리타&프랭크

7. 17. 일 14:00 리타&프랭크, 16:30 타자기 치는 남자

주최  경상남도

주관  경남도립예술단

14세 이상

균일 5천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경남도립극단이 올 여름 더위를 날릴 여름 특별공연 <연극 바캉스 3story 9actor>로 경남 도민을 찾는다. 경남도립극단의 '9명의 배우'들이 색다른 매력을 가진 '3가지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유머가 있는 따뜻한 교감의 드라마 '리타&프랭크', 198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을 조명한 '타자기 치는 남자', 유쾌하고 통쾌한 고품격 블랙 코미디 '대학살의 신'이 각각 2인극, 3인극, 4인극으로 무대 위에 되살아난다. 대공 연장 무대 위에 무대와 객석을 함께 설치해 보다 더 생생한 감동을 선사할 <연극 바캉스 3story 9actor>에 경남도민을 초대한다.

줄거리

대학살의 신

공원에서 벌어진 11살 소년 준혁과 동진의 싸움 중 동진이 휘두른 막대기에 준혁의 이 두 개가 부러진다. 동진의 부모인 종필과 현경은 아이들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준혁의 집을 방문해 상훈, 영숙 부부와 만난다. 교양 있는 중산층 가정의 부부답게 고상하고 예의 바르게 시작되었던 그들의 만남은 대화를 거듭할수록 유치찬란한 설전으로 변질되고, 진흙탕 싸움으로 치달는다.

리타&프랭크

배움과 자아발견에 대한 열망이 강한 미용사 리타는 의미 없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방 대학에 등록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포기한 채 술에 취해 살아가는 문학 교수 프랭크를 만난다. 권태로움에 빠져 있던 프랭크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리타를 보며 삶의 활력을 얻게 되고, 리타는 배움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아간다.

타자기 치는 남자

고등학교 교사였던 문식은 제자 형원을 삼청교육대에 보냈다는 죄책감에 도망치듯 숨어 글짓기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학원에 작문을 배우러 온 경구가 공안 경찰임을 알게 되자 불가능한 숙제를 내어 쫓아내려 하지만 경구는 열심히 숙제를 해내며 글솜씨가 늘어간다. 문식과 경구는 진실을 추구하는 작가와 정권의 하수인인 공안 경찰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7. 22. 금 19:30

7. 23. 토 14:00, 19:00

7. 24. 일 14:00

14세 이상

V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평소 뮤지컬을 즐겨보지 않았던 관객들마저 공연장으로 이끌며 '흥행 뮤지컬'의 대명사가 된 뮤지컬 <지킬앤하이드>가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아온다. <지킬앤하이드>는 1886년 영국에서 발간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을 무대로 옮겨온 작품으로, 인간의 내면에 담긴 '선과 악'에 대해 근원적으로 통찰하는 작품이다. 철학적 메시지에 '스릴러 로맨스'를 더해 흡인력을 높이고 캐릭터의 이중성을 담아낸다. 선율이 흐르는 넘버부터, 짙은 감성으로 눈물샘을 자극하는 넘버까지 시시각각 관객을 집어삼키는 드라마틱한 선율이 압도적인 무대에서 펼쳐지며 관객들의 혼을 빼놓는다. 선량하고 존경받는 인품의 '지킬' 박사와 냉혹하고 광기 어린 모습의 '하이드'까지 두 개의 복잡한 캐릭터를 표현해야 하는 '지킬·하이드' 역에는 카이, 신성록, 전동석 배우가 출연한다. 이어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런던의 클럽 무용수로 유일하게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지킬을 사랑하지만 하이드로부터 고통을 받는 '루시' 역은 선민, 정유지, 해나 배우가 캐스팅되었다. 귀족의 영애로 '지킬'의 약혼녀이자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신뢰와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는 '엠마' 역에는 최수진과 이지혜 배우가 맡아 열연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흥행작 <지킬앤하이드>를 7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보자.

OD COMPANY presents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JEKYLL & HYDE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선택

Conceived for the stage by Steve Cuden & Frank Wildhorn
Book and Lyrics by Leslie Bricusse Music by Frank Wildhorn Orchestrations by Kim Scharnberg Arrangements by Jason Howland
Produced by Chunsoo Shin Directed/Choreographed by David Swan

JEKYLL & HYDE is presented through special arrangements with Music Theatre International (MTI). All authorized performance materials are also supplied by MTI. 625 West 59th Street, 2nd Floor, New York, NY 10019 USA www.MTIShow.com

OD COMPANY

문화살롱 팔도보부상 이야기보따리

7. 28. 목 19:30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orea Culture and Arts Commission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8세 이상
균일 5천원

경기소리꾼 여성룡
탈춤꾼 박인선
전자음악가 허동혁

프로그램

- MASK
- 장타령
- 각색장사치
- 뱃노래
- 자진아리
- 또아리
- 노래도깨비
- 금의환향

팔도보부상 〈이야기보따리〉는 재담(재미있는 이야기)을 민요와 탈춤, 전자음악에 곁들여 관객과 호흡하는 작품이다. 재담, 민요, 탈춤을 바탕으로 하지만 전통의 재현이나 변주가 아닌, 동시대의 창작 작품으로써 즐겁게 관객과 만나고자 한다. 또한, 탈춤을 기반으로 한 몸짓과 캐릭터 구성으로 듣는 음악을 넘어 시각적인 매력도 한층 돋보이는 무대가 된다. 지방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대학 공부를 하며, 세간의 인정을 받는 소리꾼이 된 주인공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금의환향’은 바로 팔도보부상의 소리꾼 여성룡의 이야기다. 이처럼 팔도보부상이 재담소리 형식으로 담아내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우리의 이야기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동시대와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에 더해지는 노래와 춤! 팔도보부상이 선사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보따리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8. 31. 수 19:30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4세 이상

균일 5천원

극단 영

검은 실루엣으로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자극 <모차르트 마술피리>가 경남도민을 찾아온다. 극단 영이 선사하는 이번 공연은 흑백의 조화로 색다른 감흥을 선사하고, 화려한 화면구성과 마술 같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원작 오페라 <마술피리>에 묘사된 등장인물들을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친근한 캐릭터로 새롭게 재창조하여, 기존의 무겁고 엄숙함을 배제한 귀엽고 코믹한 인물들을 선보임으로써 즐거운 오페라를 선사한다. 그림자극이라는 독특하고 매력 넘치는 장르와 오페라의 음악적 장르를 적절히 배합하여, 참신하고도 흥미로운 무대를 보여 줄 것이다.

줄거리

먼 옛날 이집트, 홀연히 나타난 악마의 사주를 받아 밤의 여왕이 되어가는 파미나의 엄마, 그런 엄마로부터 딸 파미나를 보호하기 위해 파미나의 아빠는 친구인 자라스트로에게 딸을 부탁한다. 우연히 사냥을 나왔다가 괴물에게 쫓기는 타미노 왕자, 밤의 여왕이 된 엄마는 그를 구해주면서 나쁜 마법사 자라스트로에게 잡혀간 딸 파미나를 구해줄 것을 청한다. 자라스트로의 사원에 도착한 타미노 왕자는 자라스트로가 나쁜 마법사가 아님을 알게 되고, 파미나를 만나 첫 눈에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이려는 밤의 여왕의 소행임을 알게 된다. 자라스트로는 밤의 여왕을 이기려면 영혼을 정화시켜야 한다면, 타미노 왕자와 파파게노를 시련의 방으로 보낸다. 그 사이 모노스타토스가 파미나 공주에게 접근하려다 사원에서 쫓겨나 복수를 다짐하며 밤의 여왕을 찾아가는. 모노스타토스의 배신으로, 밤의 여왕에게 잡히는 사원의 식구들. 그때 세 가지의 시련을 이겨내고 나온 타미노 왕자가 나타나는데...



유니버설발레단 더 발레리나

유니버설발레단

The

더 발레리나

Ballerina

9. 23. 금 19:30

9. 24. 토 15:00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Korean Culture and Arts Center Association

주관/제작  하남문화재단 HANAM CULTURAL FOUNDATION

 고양문화재단 GYANGWON CULTURAL FOUNDATIO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세 이상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화려한 무대 뒤 숨겨진 무용수들의 리얼스토리가 온다. 유니버설발레단 <더 발레리나>는 꿈을 위해 도전하는 무용수들의 도전과 경쟁, 그리고 일상을 현실적이면서도 유쾌하게 그려낸 이야기이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발레의 저변확대와 균형적인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유니버설발레단과 5개 지역 대표 문화예술회관의 공동프로젝트로 기획되었다. <더 발레리나>는 실제와 같은 공연, 공연과 같은 실재를 담아, 발레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무용수들의 연습 일상을 무대 위에 그려낸다. 발레, 연극, 음악이 접목된 종합선물세트로, 속도감 있는 무대 전환과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극적 긴장감과 치밀한 심리묘사가 관객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유려한 클래식 명곡과 함께 선보이는 네오클래식 발레의 향연을 놓치지 말자.



문화살롱

프렌치 집시밴드 DUSKY80

9. 28. 수 19:30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센터연합회  전라남도문화예술지원

8세 이상

균일 5천원

프로그램

- | | | |
|---------------|---------------------|----------------|
| · Adios Beach | · Midnight in Paris | · 양자역학 |
| · Table Talk | · 새벽의 노래 | · 꿈같은 하루 |
| · Day Dream | · 슬픔의 색 | · La Javanaise |

한국 프렌치 집시 밴드를 대표하는 DUSKY80(더스키파공)이 프랑스에서의 휴가를 주제로 특별한 공연을 선보인다. DUSKY80은 재즈 음악계의 실력파 바이올린 윤종수, 기타리스트 하범석, 아코디언 전유정, 콘트라베이스 김대호, 보컬 홍찬미, 리더 정용도가 만드는 하모니와 풍성한 사운드를 통해 아름다운 멜로디 선율을 완성한다. DUSKY80은 프렌치 집시와 재즈가 다소 어렵다는 선입견을 지우고자,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낭만적으로 풀어낸 곡들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관객들이 집중해서 감상하기 좋은 연주곡과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보컬 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관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무대를 꾸민다. 또한, 프렌치 집시음악에 한국적 색채를 가미해 에너지가 넘치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으로 연주한다. 이번 공연을 통해 DUSKY80은 파리의 거리를 연상시키는 로맨틱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멜로디로 관객들에게 프랑스에서의 휴가를 선사할 전망이다.



문화살롱

브랜든 최&김재원 듀오 가을날의 라흐마니노프

10.26. 수 19:30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지원연합회  경상남도문화재단

8세 이상

균일 5천원

프로그램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Sergei Rachmaninoff

-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2개의 소품 Two Pieces for Cello and Piano, Op.2
- 보칼리제 Vocalise, Op.34 No.14
- 엘레지 Elegie, Op.3 No.1
-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G minor, Op.19

색소폰과 피아노의 환상적 만남! <브랜든 최&김재원 듀오 '가을날의 라흐마니노프'> 공연이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국내는 물론, 유럽과 미국 및 전 세계의 무대에서 클래식 색소폰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 섬세한 터치와 음색, 센스 있는 음악성을 가진 피아니스트 김재원이 만났다. 브랜든 최는 프랑스 리옹 국립 음악원에서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 미국 신시내티 음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석사 학위를, 동 대학원에서 최연소 나이로 박사학위(D.M.A)를 받았다. 그는 미국 신시내티 컴 피티션 1위, 미국 MTNA 국제 콩쿠르 2위, 한국음악협회 콩쿠르 1위 등 수많은 국내외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미국 맨하탄 음악대학 교수이자 뉴욕 필하모닉 상임 작곡가를 역임한 수산보티의 색소폰 콘체르토를 미국 신시내티 오케스트라와 세계 초연하며 솔리스트로서 주목받았고, 한국 클래식 색소포니스트로서는 최초로 미국 링컨센터에서 리사이틀을 진행했다. 피아니스트 김재원은 동아음악콩쿠르 1위를 비롯해 다수의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하며 일찍이 두각을 나타내었다. 탁월한 실내악 센스를 가진 김재원은 서울시향 실내악 시리즈, 부페 크람프 디바인 클라리넷 콘서트 등에서 연주하였으며, 현재 국내외 굴지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매해 최소 100회 이상의 실내악 연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재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클래식 아티스트들과 함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께 뜻을 모아 연주단체 'Club M'을 창단하여, 리더이자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브랜든 최



김재원

대형스크린으로 만나는 크노마이오페라

크노마이오페라는 국립오페라단의 영문명 Korea National Opera의 약자인 KNO와 사공간의 제약없이
사용자의 취향대로 나만의 오페라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의미인 마이오페라(myOpera)의 합성어로,
국립오페라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고유 브랜드 명칭이다.



오페라 나부코

9. 15. 목 19:30

12세 이상
균일 3천원

줄거리

바빌로니아의 왕 나부코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공격해 오고, 예루살렘 왕의 조카 이즈 마엘레와 나부코의 둘째 딸 페네나 공주는 서로 사랑에 빠진다. 나부코는 이스라엘의 신을 모욕하고 성전을 불태우라고 명령한다. 바빌론의 제사장은 나부코의 큰 딸 아비가일레를 부추겨 나부코가 죽었다는 소문을 퍼트리고 페네나를 죽일 계획을 세운다. 나부코가 돌아와 자신이 곧 신이니 자신을 숭배하라고 명하자 갑자기 번개가 떨어져 나부코가 정신을 잃는다. 이 틈을 타 아비가일레가 떨어진 왕관을 머리에 쓴다. 나부코가 페네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아비가일레는 나부코를 가둔다. 나부코는 위대한 유대 신을 찬양하고, 독약을 마신 아비가일레는 페네나에게 용서를 구하며 숨을 거둔다.



오페라 마농

11. 30. 수 19:30

12세 이상
균일 3천원

줄거리

열다섯의 소녀 마농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수녀원으로 향하던 중 젊은 귀족 데 그리외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이들은 파리로 도주하여 결혼을 계획하지만 데 그리외의 아버지의 반대와 마농에게 구애를 펼치던 귀족 브레티니의 방해로 헤어지게 된다. 부유한 브레티니와 함께 향락에 빠져 살던 마농은 데 그리외가 자신과 헤어진 후 신부가 된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고, 수도원으로 찾아가 용서를 빌고 다시 시작하자며 그를 유혹한다. 재회한 둘은 곧 생활비가 떨어지자 마농은 그를 부추겨 도박장으로 이끈다. 한때 둘에게 농락을 당한 늙은 호색한 기요는 데 그리외에게 많은 돈을 잃자 그가 속임수를 썼다며 둘을 경찰에 넘겨버린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데 그리외는 감옥에서 풀려나지만 구제받지 못한 마농은 감옥에서 병들어 미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인다. 석방된 데 그리외가 가까스로 마농을 구하지만 결국 그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둔다.



오페라 라 보엠

12. 21. 수 19:30

12세 이상
균일 3천원

줄거리

파리의 라틴 지구 다락방에서 시인 로돌포와 그의 예술가 친구들은 가난하지만 즐겁게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로돌포는 축구를 빌리러 온 이웃집 미미와 우연히 만나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마르첼로는 옛 연인이었던 무제타와 재회한다. 그러던 중 미미의 폐병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괴로워하던 미미와 로돌포는 결국 헤어진다. 죽음이 임박한 미미는 사랑하는 이의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로돌포를 다시 찾는다. 병든 미미를 보살피기 위해 친구들은 소중히 아끼는 물건들을 팔아 약과 토시등을 마련해오지만 끝내 미미는 로돌포의 곁에서 세상을 떠나고 만다.